

## 축사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 한국고분자학회 50주년, 새로운 도약을 기원하며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고분자학회에 진심 어린 축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976년 창립 이후 한국고분자학회는 화학·소재 분야의 핵심인 고분자 과학을 체계화하며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대한민국의 산업화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1977년 국내 최초의 고분자 학술지 Polymer(Korea) 창간을 시작으로, 1993년 영문 학술지 발간과 2002년 Macromolecular Research SCI 등재를 통한 글로벌 학술 경쟁력 확보까지, 학회의 노력은 대한민국 고분자 과학 연구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학생 회원 수가 1977년 205명에서 2025년 2,037명으로 10배가량 성장한 것은, 학회가 국가 과학기술을 이끌 차세대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도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학회는 세계 수준의 학술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전략기술 분야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해 왔습니다. 1996년과 2021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고분자 학술 대회인 IUPAC MACRO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대한민국 연구 역량을 세계에 알렸고, 1989년부터 IUPAC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제 학술 표준 설정을 선도해 왔습니다.

2026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IUPAC-PSK50 컨퍼런스는 전 세계 석학들이 모여 고분자 과학의 미래를 논의하는 국가적 과학 행사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또한 학회는 분자전자, 의료용, 에너지, 친환경 소재 등 7대 전문 연구 부문을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며, 혁신 소재 개발과 국가 전략 기술 대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업과의 협력, 현장 중심 연구, 산업계 참여 활성화 등 학회의 실천적 노력이 국가 미래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고분자학회가 지난 50년 동안 쌓아온 학문적 성과와 인적 자산은, 앞으로의 50년에도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혁신을 견인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한국고분자학회의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학회의 빛나는 전통 위에 끊임없는 연구 열정과 혁신을 더해 더 큰 발전과 도약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구혁채**